

나주 봉황고, '진로 직업전문인 초청' 특강 프로그램 운영

각양각색의 봉황 꿈꾸며 미래를 설계하는 봉황고 학생들 '미래를 담은 기술 차세대 배터리'등, 34개 프로그램 참여

나주 봉황고등학교가 지난 10월 25일, 1,2학년 283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탐색을 위해 '2023. 전문직업인 초청 진로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진로특강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전문직업인들과 직접 만나는 기회를 가졌고 직업과 관련한 준비 및 대응, 경험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겪은 어려움과 보람을 듣고, 질문을 통해 궁금한 점을 해결했다.

34개의 전문직업인이 강사로 참여했으며 학생들은 희망하는 분야에서 강연을 듣고 진로탐색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기자 ▲공무원 ▲수의사 ▲국어교사 및 평론가 ▲변호사 및 공인중개사 ▲사

회교사 및 장학사 ▲감정평가사 ▲교수, 학예사, 수학강사, 작가, 큐레이터 ▲경찰 ▲컴퓨터 및 AI 인공지능 ▲사서 ▲로봇드론 ▲미래자동차 ▲항공운항서비스(승무원, 스튜어디스) ▲항공운항학 ▲배터리공학 ▲전기공학과 ▲한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상담심리사 ▲뮤지컬 실용음악 공연예술 분야 ▲소방사 ▲치위생사 ▲기관사 ▲유치원교사 ▲미용사 ▲컨테이너 ▲기계공학자 ▲제과제빵 제과 기능장 우수 숙련 기술인 ▲약사 ▲초등특수교육 등 다양한 직업군에 걸쳐 특강이 이뤄졌다.

행사에 참여한 2학년 김민준 군은 "평소에

관심 있던 직업은 책이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서만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직업을 가진 분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매체를 통해서 알 수 없었던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으며, 또 무조건 그 직업을 추천하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진로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1학년 최수용 군은 "공무원 강의를 들으면서 평소 듣지 못했던 공무원의 좋은점과 한계를 생생하게 알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고, 이를 통해 나의 장래 희망을 신중하게 고민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강사로 참여한 서상준 전 전남대 교수, 현 광주시 국어진흥위원회 위원장은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앞두고 전문직업인의 풍부한 경험과 세심한 조언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탐색하고 꿈을 키우는 기회를



갖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고, 나주 남평중 출신의 강구 전 광주광역시 학생교육원장은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고, 질문하며 경험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대견하고 믿음직스러웠습니다."라고 전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기계공학 권위자인 캔텍 교수 이영덕 박사, '수학과 그림사이' 저

자 홍성미(필명 홍채영) 박사, 심명섭 전남대 학술정보지원과장, 로봇드론 교수 이용규 박사, 배터리, 미래자동차 권위자 등 유명 직업인들이 참여해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진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봉황고는 3년째 진로 전문직업인 초청 진로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나주=기동취재본부

영암 장천초, 꿈길 여행으로 미래 꿈꾸는 도시문화 체험 실시



전라남도교육청 지정 미래형통합운영학교인 장천초·영암서호중학교는 학습의 장을 넓혀 다양한 경험을 쌓고 학생 주도적 활동을 통해 리더십과 협동심을 기르며, 그 과정 속에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특별한 꿈길 여행을 초등학생을 대상

서울 일원으로 2박 3일 도시문화 체험

으로 2023년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일원에서 실시했다.

이번 꿈길 여행이 특별한 이유는 좀처럼 도시 문화체험을 할 수 없는 학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스스로 길을 찾아보고, 연극 공연 관람, 국립어린이과학관, 국립중앙박물관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경험의 폭을 확장하며 학생들의 꿈과 열정을 자극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함양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다.

장천초 학생들만의 특별한 꿈길 여행은 대중교통 이용으로 시작했다. 고속철도를 이용

해 목포에서 서울로 이동, 63스퀘어에서 해양 생태계 관찰과 전망대에서 서울의 모습을 살펴보고, 들깨밭을 서울숲 씨어터에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동화 '알사탕'을 실제 연극으로 관람하며 하였으며, 롯데월드 어드벤처, 서울스카이를 체험했다. 셋째날은 1~3학년은 국립어린이과학관을 방문하여 과학적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웠으며, 4~6학년은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하여 다양한 유물들을 직접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영암=조대호기자



진도고, '2023. HOPE 프로그램-(Outskirt)'

진도고등학교는 10월 28일 HOPE 프로그램-Outskirt(마을공동체 노인복지)를 전개하였다.

HOPE 프로그램이란 History, Outskirt, Purification, Ecopark의 약자로 지역사회 역사 및 생태 탐방, 노인 복지, 환경 정화를 기초로 한 진도고등학교의 특색 사제동행 봉사활동 프로그램이다. History(역사 탐방), Purification(수질정화)에 이어 세 번째로 Outskirt(마을공동체 노인복지)를 진행하였으며, 40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진도군 임회면 소재지의 마을 3곳(고산리, 중매리, 길우리)을 섭외하여 마을회관을 방문하고, 마을 일손을 돕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봉사활동 전개 전 사전 모임 및 안전 교육을 통해 마사지 순서 및 노인을 위한 안전한 마사지 방법을 공유하였다. 당일 마을회관에 모여 안마와 피부 및 손톱 관리 등을 해드리며 서로의 고민과 일상을 공유하고 세대를 이해하는 소통의 장 마련하였다.

다과와 함께한 따뜻하고, 풍요로운 마을회관 방문 봉사 이후 일손 돕기 활동을 전개하였다. 잡초 제거, 폐기물 분리수거, 마을 정화 활동, 주거지 정리 등 각 마을 별로 필요한 일손에 학생들이 투입되었다. HOPE 프로그램-Outskirt에 참여한 김OO(진도고 1학년) 학생은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 알게 된 마을임에도 친구들과, 선생님,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웃고 함께하니 친밀하고 가깝게 여겨졌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인솔 교사 정OO은 "이번 기회를 통해 면 소재지의 마을과 학생들이 함께 소통하는 장이 마련되길 소망하며, 학생들의 방문을 허락해준 마을의 협조에 감사한 마음이다."라는 소감을 발표하였다.

진도고등학교는 이후에도 철새 도래지 및 환경관리센터 탐방(Ecopark)의 연간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진도=조상용기자

광양햇살학교, '전통문화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최

광양 햇살학교는 유, 초, 중, 고등학생 86명을 대상으로 10월 3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총 5회기에 걸쳐 광양 사라실 예술촌과 연계한 「전통문화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유, 초등학생은 예절교육, 중학생은 다도 체험, 고등학생은 국궁 체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다. 학생들이 다양한 전통문화를 체험함으로써 사라져 가는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하여 알고 전통문화가 갖는 역사적, 문화적 의미에 대하여 배울 수 있도록 구

성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연령대에 맞춰 초등학생은 유생들의 의복인 유복에 대하여 알아보고 직접 입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전통 의복과 복장에 맞는 예법에 대해서 배웠다. 중·고등학생은 차를 마시는 법, 차와 어울리는 우리나라 전통한과를 만드는 법과 우리나라 전통 활인 국궁을 직접 만들어 보고 활을 쏘는 자세와 방법에 대하여 체험하였다.

광양=기동취재본부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